

# 북한 미사일 발사... 여야 한목소리 규탄

민주당 “윤 정부의 안보 무능”  
국민의힘 “민주당, 음모론만”

북한의 단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풍 음모론만 내뱉는다’며 서로에 대한 지적은 잊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매우 잘못했다”며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잘못된 차지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 그제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의안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안보실 국장에게 질문했다. 답변이 황당하게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외교 안보에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력”이라며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상황이 바뀌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의 폴리티코



19일 여야가 북한의 단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북풍 음모론’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권의 무능외교’에 대해 지적했다.



19일 여야가 북한의 단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북풍 음모론’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권의 무능외교’에 대해 지적했다.

라는 한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북한이 핵 동결과 개발을 중단하면 현재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경제 제제를 풀어주고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고 있다”며 “이게 지금 트럼프 관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내에서 상당히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집권해서 이런 북미 간의 거래가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물음을 던졌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험을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인적 쇄신도 함께 해야 한다”며 “안보실 그리고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하고 한미 동맹과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균형 있는 미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일이 외교 강화한다고 중국·러시아와 척을 저서야 되겠다”며

“그게 실력이다. 미일외교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실력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는 남는 게 없다. 안보는 말 폭탄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 직후 노동신문을 통해 무책임한 망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제2차 핵 협의의 그룹회의에서 확장 억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힌 데 대한 무력 시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대행은 “북한은 긴장의 화살을 우리 정부의 정당한 안보 노력에 돌렸다”며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다며 북풍 음모론을 설파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화음을 이루는 주장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윤 대행은 “최근 통일연구원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종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대형 군사

도발과 남남분열 공작을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예전과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도발·공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일도 있었다”며 “우리로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행은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만 눈이 멀어 북풍 음모론과 반월 선동 등으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분열 공작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북한 정권만으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조태근 기자

## 선진 교육 현장 체험... 미래교육 모델 탐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1일까지 대만 연수 나서

“이번 대만 연수는 인천 교육과 문화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대만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대만의 교육정책 및 추진사업을 분석해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만 타오위안시 교육국 및 타오위안 시립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를 공유 예정이다.

교육위는 18일에 대만 최대의 공공 도서관인 타오위안 시립도서관을 방문해 격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9일에는 타오위안시 교육국을 방문해 대만의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인천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외에는 폐교 초등학교를 인문디자인 공간인 서점으로 변모시킨 블루버드 중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시설 활용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신중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선진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가 함께 결합된 새로운 가치의 공간으로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대만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 “연안여객선도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허중식 의원, 개정안 발의  
도서지역 주민 편의 증진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될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중식(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국회의원이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될 바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한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제4조의 2 적용범위에 대해 연안여객선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정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교통카드 호환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제10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여객선의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적용범위(제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 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법에 포함된 데 따라 광역알뜰카드 적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 303억원 가량 예산이 집행되는 알뜰교통카드는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 96만521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6853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 민주당 경기도당 “한동훈 정신차리길”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지적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 맹폭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김소연(사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는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 검사 공천용 비대위, 김건희 특검 거부 비대위 포석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소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차출론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팎에서 ‘대통령 아바타’라는 반발이 일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재



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데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여론 형성을 위해 물밑작업에 돌입한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대는 마치 신군부를 연상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요직을 검찰로 도배하다 못해 이젠 자격도 안 되는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꽂아 여당을 식물 정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여당은 내부 권력 놀음에 예산안 처리, 민생법안, 이태원 특별법 논의 등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채 이라도 저라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때 한동훈 장관은 그저 꽃놀이패를 쥐고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면서 “장관 일정한 척 정치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정계 입문은 아니라며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을 개인 치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악어의 눈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마음이 풍방에 가 있으니 검증하는 인사마다 엉망이고 장관으로서 정책적 성과 하나 없는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사단의 비호 없이는 단 하루도 국무위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역대급 무능 장관이다. 문책을 받아야 마땅한 낙제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대는 꼴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끝내 정치지망생이 되려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정권의 이양이라도 약속받는 것이냐”며 “5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대통령과 함께 ‘검사의 봄’을 꿈꾸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복제의 허상을 쫓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라. 시대의 부여자는 청산이 답이다. 국민과 역사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창 기자

### 총선 출사표

#### “광주시 균형발전 지향해야”

황명주 예비후보



재고개를 중심으로 하는 국지도 57호, 43호선의 교통지옥 속에 시민들의 원성과 고통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 “광주는 권역별 가치를 품은 공간구조 개편을 토대로 도시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며 “역사와 자연 그리고 체계화된 도시계획이 어우러진 광주시 천년지대계를 위해서는 권역별 구조개편과 도심기능의 다핵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혁모 기자

#### 주민소통 최우선 현장중심 정치

김성기 예비후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소통 및 상생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보건·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추진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정책의 강화와 국방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출마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신영수 기자

#### “정치 변화의 바람은 수원정에서”

이수정 예비후보



이수정(사진) 수원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부터 ‘수원(정)’ 하면 저 이수정, ‘영통구’ 하면 이수정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융합타운이 위치한 수원(정) 지역은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정치·경제·행정·교육 1번지라며,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통구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와 광교테크노밸리,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을 이끌어갈 수원컨벤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 38.7세의 젊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교테크노밸리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아주대병원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의 산학협력 연계를 통해 경기남부권의 바이오산업 메카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제1번지 수원(정) 지역의 발전이 곧 수원시와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열 기자